

도민 목소리 소통창구 '유명무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제안 채택률 12%... 회의 없는 위원회도 21곳

제주도민이 도정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소통창구로는 ▷국민신문고 ▷위원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참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정책 반영도 잘 되고 있지 않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원이나 정책제안 등이 이뤄지는 국민신문고 참여·채택 건수를 보면 ▷2016년 369건(채택 69

건) ▷2017년 434건(채택 84건) ▷2018년 338건(채택 41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채택률은 2016년 18.6%, 2017년 19.3%, 지난해 12.1%로 나타났다. 도민 의견이 수용되거나 민원 해결 건수가 20%도 되지 않는 셈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4년 2772명 ▷2015년 2943명 ▷2016년 3538명 ▷2017년 3790명 ▷지난해 4096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5개의 위원회 중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는 77곳(30%)이다. 심지어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도 21곳(8.2%)이나 된다.

도민에게 도정정책 의견을 묻는 정책토론회 제안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지난해 1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제주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지만, 21일 현재 조희수 446건에 댓글 제안 8건에 그쳤다.

설문조사 실시도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8건 ▷지난해

5건으로 줄어든데다, 생활민원이 다수 올라오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 참여건수도 ▷2015년 901건 ▷2016년 1678건 ▷2017년 2525건 ▷지난해 2624건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도민이 제안한 일부 정책은 효과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제안에 따른 낮은 채택률로 참여 의욕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온라인 참여에 한계가 있어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강화와 정책박람회 등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도민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 낮춘다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부담 경감대책 마련

제주시는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자는 거주지에 자동차를 보관하거나 진·출입할 수 있는 차고지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 제주도 동지역에서 2000cc 이상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 동지역에서 1600cc 이상 중형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소진기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중·대형 및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 경·소형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라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용 임대 이용시 연간임대료를 동지역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 1250원으로 낮춘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시민의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김원석기자

추자도에 희귀 동·식물 940종 산다

유산본부 등 국내 미기록종 버섯·거미·나방유충 다수 발견

'섬 속의 섬' 추자도에 940여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학술조사에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회장 임승철)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자도 공동학술조사 내용을 담은 제23차 공동학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일대이며 식물 406종, 조류 69종, 곤충 303종, 어류 46종, 버섯 69종, 거미 53종 등 940여종의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의 경우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 문주란·눈향나무(식재)·섬오갈피(식재)·덩굴민백미꽃·연화바위솔·세불석위 등 6종과 특산식물 산이대, 할미밀망 등 2종을 포함한 총 96과 406종이 관찰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 리스트 등급으로 보면 문주란·눈향나무·섬오갈피·덩굴민백미꽃은 '위기(EN)' 등급이며, 연화바위솔·세불석위는 '취약(VU)' 등급인 식물이다.

버섯은 총 26과 42속 69종이 관



추자도에서 발견된 한국 미기록종 주머니나방 유충.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찰됐다. 특히 제주도에서 2016년 국내미기록종으로 보고된 미지광이버섯 속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곤충은 국가 기후변화 지표종인 넓적송장벌레, 남방노랑나비, 물결부전나비, 소철꼬리부전나비를 포함 총 9목 77과 303종이 조사됐다.

국립수목원과 국립중앙과학관 공동 조사팀이 다수의 주머니나방 유충을 발견했는데 DNA 바코드 분석 결과 이 역시 '한국미기록종'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미는 국가 기후변화 생

물지표종인 산왕거미, 꼬마호랑거미 및 후보종인 말꼬마거미를 포함 총 17과 43속 53종이 관찰됐으며, 지금까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진 알거미과 진드기거미속의 한국미기록종도 국내 최초로 추자도에서 확인됐다.

조류는 멸종위기 I급인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와 멸종위기 II급인 붉은새매(323-2호)·흑비둘기(215호)·팔색조(204호)·두견이(447호)·벌매·조롱이·섬개개비 등 총 10목 30과 69종이 관찰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중학생 대안교육 '합성교실' 탐라교육원 9~11월 시범운영

도내 중학생 대안교육 '합성교실(함께 성장하는 교실)'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된다. 이와관련해 탐라교육원은 21일 운영 협의회를 열고 도의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구성 논의 등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탐라교육원은 지난 4월부터 부산 및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도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합성교실'은 올해 2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은지기자



대정읍 5개마을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의중인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소진기자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하라" 대정읍 5개마을회 회견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대정읍 마을 주민들이 현재 심의중인 'ACS 제주 국제학교'의 설립계획 승인을 촉구 하고 나섰다.

보성리·인성리·안성리·신평리·구역리 마을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CS를 비롯한 국제학교들이 설립되지 못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결국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 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국제학교와 관련 "새롭게 더 신설되는 건 쉽

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여러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대규모 국제사업으로, 막대한 예산과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추가신설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지금껏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 완성을 믿고 사업부지를 내어주며 협력해 온 지역마을의 직접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승인과 관련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가동중이며 오는 27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재+드론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어업인과 함께 새로워진 한림수협! 바다와 같이 푸른 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제주 한림수협위판센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비양도 앞바다, 제일 신선한 수산물, 제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일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만큼은 제주 한림수협을 한수위라 불러드립니다.

문화! 복지! 교육! 지역민과 함께 융성하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 www.hallimsuhyup.co.kr / (064)795-0522~5